

9월 광주에 전 세계 예술 꽃이 만발한다



차이밍량 '차이밍량의 영화관'

표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 개관 페스티벌 작품 확정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예술감독 김성희) 개관 페스티벌 작품이 확정됐다. 아시아예술극장은 30일 인터넷 홈페이지(asianartstheatre.org)를 통해 개관 페스티벌 라인업을 공개했다. 아시아예술극장의 비전과 방향성을 집약하는 개관 축제는 오는 9월 4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예술극장은 개관 축제가 끝나는 10월부터 다음해까지 진행되는 '2015-2016 시즌' 공연작도 함께 발표했다. 예술극장은 개관 작품에 대한 공식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만간 티켓 판매도 시작한다.

9월 4~21일 33편 공연... 자체제작 12편 포함 광주여고·광주극장·빛고을시민문화관 등서도



브렛 베일리 '맥베스'

대만 차이밍량·태국 아피차퐁 감독 지역 작가 이이남 참여...연극 등 다채

개관 페스티벌에서는 모두 33편의 작품이 소개된다. 아시아예술극장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12편 작품도 포함됐다. 연극, 무용, 설치, 영상,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작품이다. 아시아 국가로는 물론이고 러시아,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국내 작가로는 이이남씨 등 3명이 선정됐다.

공연 공간은 아시아예술극장의 2개 공연장과 로비, 리허설 스튜디오 등 극장 공간과 함께 광주여고 체육관, 광주극장, 빛고을시민문화관, CGI센터 등으로 확장됐다.

영화와 설치 미술의 경계를 허물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대만 감독 차이밍량은 3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당나라 승려 현장의 행보를 좇는 연극 '당나라 승려'는 인생의 덧없음을 함축하는 협소한 무대 공간에서 차이밍량 감독의 '페르소나'인 배우 이강성이 연기한다. 또 참여형 영상 설치 작품인 '떠돌이 개 in 광주', '차이밍량의 영화관'을 선보인다.

칸느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태국 감독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은 영상 작품 '콩카엔의 사랑'과 연극 '열병의 방'을 선보인다.

프랑스 작가 클로드 레지가 90세에 연출한 '내면', 아랍의 관점에서 십자군 전쟁을 재해석한 이집트 작가와 엘 사키는 '카비레 십자군', 전쟁으로 폐쇄된 사회의 부패, 실상, 잔혹성과 탐욕을 그린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렛 베일리의 오페라 '맥베스'를 만날 수 있다.

신화와 역사, 구전동화와 기억 속에서 출몰하는 호랑이의 발자취를 모티브로 한 호주시인의 연극 '만마리의 호랑이', 야구 규칙을 모르는 여자들,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야구를 멀리하게 된 남자, 어쩌다 야구를 싫어하는 남자와 결혼하게 된 여성 야구팬 등이 등장하는 일본 작가 오카다 토시키의 '야구에 축복을' 등도 대기중이다.

지역 출신 작가로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가 참여해 '디지털 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을 선보인다. 고전 명화들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한 작품을 배경으로 작가가 자신이 직접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디지털 다큐멘터리 연극이다.

그밖에 국내 작가 작품으로는 김성환과 데이비드 마이클 디그레고리오의 '피나는 노력으로 한', 김지선 작가의 '다음 신의 클라이막스' 등이 공연된다.

중국어권원의 '홍등기'는 문화혁명 시기인 1969년 강정 예술감독 체제에서 만들어진 작품으로 문화혁명의 아이러ンを 통해 이념과 예술, 역사와 서사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던지는 작품이다. 그밖에 오스카 와일드의 원작을 연극으로 옮긴 러시아 작가 콘스탄틴 보고몰로프의 '이상적인 남편', 영화 감독 암바스 키아로스타미의 '관람자들을 바라보기',

프랑스 작가 클로드 레지가 90세에 연출한 '내면', 아랍의 관점에서 십자군 전쟁을 재해석한 이집트 작가와 엘 사키는 '카비레 십자군', 전쟁으로 폐쇄된 사회의 부패, 실상, 잔혹성과 탐욕을 그린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렛 베일리의 오페라 '맥베스'를 만날 수 있다.

신화와 역사, 구전동화와 기억 속에서 출몰하는 호랑이의 발자취를 모티브로 한 호주시인의 연극 '만마리의 호랑이', 야구 규칙을 모르는 여자들,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야구를 멀리하게 된 남자, 어쩌다 야구를 싫어하는 남자와 결혼하게 된 여성 야구팬 등이 등장하는 일본 작가 오카다 토시키의 '야구에 축복을' 등도 대기중이다.

지역 출신 작가로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가 참여해 '디지털 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을 선보인다. 고전 명화들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한 작품을 배경으로 작가가 자신이 직접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디지털 다큐멘터리 연극이다.

그밖에 국내 작가 작품으로는 김성환과 데이비드 마이클 디그레고리오의 '피나는 노력으로 한', 김지선 작가의 '다음 신의 클라이막스' 등이 공연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표문화전당

나무도 힐링이 필요해

아트스페이스 강남구전... 오늘~5월 4일

'몽환적으로 피어나는 매화.' 전남대 치과병원 1층 로비에 자리한 아트스페이스는 1일부터 5월4일까지 서양화가 강남구씨를 초대해 '몽경, 그 길을 걷는다'를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강씨는 섬진강 주변 흐드러지게 핀 매화와 백일홍, 알알이 붉은 석류 등을 주된 소재로 자연과의 사색을 이야기한다. 작가는 공간과 장소, 시간에 따라 감흥을 달리하는 풍경을 작가 특유의 색감과 분석으로 재해석했다.

특히 작품 중심에 세밀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묘사한 꽃과 나무 등을 배치하고, 주위 풍경을 몽환적으로 처리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때문에 안정적인 구도를 취하는 작품들은 특정 공간에서 뿔어져 나오는 생명력을 분출, 관람객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는다.

작가는 "자본을 앞세운 개발주의로 자연은 짓밟혀왔다"며 "자신 자연을 따뜻하고 온화한 미학으로 보듬고 싶다"고 말했다.

순창 출신인 강씨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동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24차례의 개인전을 열었다. 3월에는 헤이리 포네티브 스페이스에서 '기억, 시간, 동행'을 주제로 2인 초대전을 가졌다. 문의 062-530-5500. /김경민기자 kki@



뛰어나보세

놀이패 신명 마당극 3~4일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

놀이패 신명이 제40회 정기공연 마당극 '술래소리-육신 악신 뛰어나보세'를 무대에 올린다. 3일 오후 8시, 4일 오후 3:30시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

'술래소리'는 우리나라 민속놀이인 '강강술래'를 기본 줄기로 우리나라 역사를 담아낸 작품이다. 임진왜란과 일제침략 등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고 한국전쟁과 5·18민중항쟁 그리고 현재까지의 역사의 흐름 속에 어려울 때마다 그 진가를 발휘한 공동체의 힘을 노래와 놀이를 통해 표현한다.

굴곡진 근현대사를 극과 노래, 놀이를 통해서 유니버설적으로 형상화했으며 특히 진도에서 전승되었던 '남산산성 도척놀이'를 가미하여 놀이와 연희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관객에게 익숙한 강강술래를 통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관객참여형 다툼 퍼포먼스가 이번 공연의 특징이다.

박강의씨가 연출을, 국악인 윤진철씨가 음악감독을 맡았다. 오숙현, 정찬일, 홍지현, 지정남, 김은숙, 김호준, 김혜선, 이선행, 소중섭, 백희정, 박해라씨가 배우로 출연하고, 악사는 김종일(소, 소리북), 백민(장구)씨다. 사전예약자 우선 입장으로 관람료는 감동후불제다. 문의 062-527-7295.

/김미은기자 mekim@



중국경극원 '홍등기'

2015-2016 시즌 프로그램...10월부터 20개 작품 공연

축제는 계속된다

아시아예술극장은 시즌제로 운영된다. 개관 페스티벌이 끝나면 2016년까지 20개 작품이 공연된다. 올 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주 커뮤니티 작품들도 이 때 선보이게 된다.

초대 예술감독 프리 라이젠이 기획한 '아이 마스트' 색션을 통해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크리스토프 마탈라의 음악극 '데사 블롭슈테트는 포기하지 않는다' 등 5작

품을 선보인다.

'아시아 원도우'에서는 장영규 등 아시아 5인의 기획자가 제안한 5개 작품이 무대에 오르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커뮤니티 원도우' 색션으로 소개된다.

광주 일대 기억 속 공간들을 소재로 한 '검은 밤'의 음악극 '비는 오지 않지만, 우리엔 우산이 있지', 5·18의 격전지였던 구 도청을 주 무대로 삼아 오늘을 살아가는 광주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필름에 이지'의 '광인', 'Art way 숲'의 '소리의 숲', 청년문화허브의 '질문하는 인간 - Paper Q' 등이 공연된다.



이이남 '디지털 복제시대의 예술작품'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중-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의, 전 종신대학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227-7575